

## ‘현해탄’이란 말 쓰지 말자

이진원

부산일보사 기획출판부

흔히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대한해협’이라는 말 대신에 ‘현해탄’이라고 쓰기를 좋아한다.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 모임 가운데 ‘현해탄 어찌고 회’하는 것도 있고 언론에서도 흔히 ‘뗏목으로 현해탄 건너다, 현해탄을 헤엄쳐 건너다, 현해탄을 사이에 둔 한국과 일본, 한일월드컵이 현해탄을 오가며 열린다’ 따위로 쓰기도 한다. 임화의 시집 제목이 『현해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그것도 주로 지식층이 멋부리느라고 즐겨 썼을 법한 이 말이 지금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나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경’ 쯤이란 뜻으로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해탄은 결코 이렇게 ‘대한해협’ 대신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바다를 부르는 말로 써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영향을, 그것도 아주 잘못 받은 말이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나라와 ‘일본 섬’ 사이 바다를 우리는 대한해협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쓰시마해협(對馬海峽)이라고 부른다. 또 일본은 이 쓰시마해협을 ‘동수도(東水道)’와 ‘서수도(西水道)’로 구분하는데 ‘서수도’는 쓰시마섬에서 한일 경계지점까지를, ‘동수도’는 쓰시마섬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각각 이른다. 이 동수도 가운데서도 일본땅에 아주 가까운 바다, 그러니까 이키섬과 후쿠오카 사이의 만(灣)처럼 생긴 바다를 일본에서는 ‘켄카이나다’라고 부른다. 한자로는 ‘玄海灘’이다(일

본측에서는 '玄界灘'이라고 더 즐겨 부른다). 이 '겐카이나다'는 대개 깊이가 50~60m쯤 되는 얇은 바다인데 겨울엔 계절풍이 아주 강하게 불어 많은 어선이 조난을 당하기도 한다. 이곳 연안은 경치가 뛰어나 일본의 국립공원(玄海國定公園)으로 지정돼 있다.

요약하자면 '현해탄'은 일본의 앞바다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한자로 '灘'자를 붙여 놓았으니 일본 쪽에서는 '해협'보다도 작고 '수도(水道=해협)'보다도 작은 개념인 것이다(이쯤 되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충무공의 호국혼이 살아 있는 곳을 일컫는 '한려수도'도 일본말 찌꺼기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다). 그러나 대한해협을 두고 일본 쪽에 붙은 조그만 바다 이름을 가져와 부르는 것은, 비유하자면, 동해를 두고 영일만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

일제 때 관부연락선이라는 배가 있었다.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를 오가던 이 배는 식민지인 우리나라를 장사와 총칼로써 수탈하려던 일본인들이 주로 탔다. 그런 일본인들이 본다면 아주 파도가 높고 물결이 거세 배가 자주 뒤집히기도 하던 그들의 바다, 바로 '겐카이나다'를 건너는 것이 '악속의 땅'이자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인 식민지 조선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현해탄'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연도 얹혀 있다.

적어도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대한해협을 두고 '현해탄'이라고 부르지는 못할 일이다. 아니, 이런 민족적인 자존심을 떠나서라도 일본의 조그만 앞바다를 지칭하는 말로써 대한해협이라는 우리말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리학에는 제유법(사물의 한 부분으로 그 사물의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이 없으니까.